

## 6장 연극단 형성하기, 교회하기

- 1. 서론(연극단의 필요)
  -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요구
    - 5장 : 그리스도인의 고유 사명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 6장의 부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실연하기 위한 교리의 지시들
    - 예수님을 충분히 상연하는 일에는 연극단이 필요
  - (2) 연극단(교회)의 구성원은.....
    -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제자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깊게 살피고 그 길로 행하는데 전념하는 사람들
  - (3) 교회= 복음의 극장
    - 연기자들로 구성된 연극단
      -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의 친교 안에서 삶으로 구현되는 광경을 목격하기에 최선의 장소.
    - 연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연공간
      - 교회는 복음 선포와 복음 예시를 통하여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엡3:9)을 알리는 수단.
  - (4) 6장의 목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교훈적인 역할을 이해하기
- 2. 성도의 교제: 왕궁 상연으로서의 제자들의 모임-"이것을 상연하라"
  - (1) 윌리엄 에이스 : 교회를 구속의 대상인 동시에 구속의 결과로 이해.
    - 구속의 대상 :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엡5:25)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 구속의 결과 :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짐 -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
    -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가능케 함.
  - (2) 세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연극단: 그리스도 드라마에 참여하기(교회의 구성원)
    - 예수님과 세례
      -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 시작
      -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으심
      -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마3:11)
      -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심(마28:19)
    - 물세례가 갖는 의미
      - 한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구속 드라마에 첫 발을 들여 놓게 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 예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함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복음의 이야기 전개로 들어가는 관문
      - 성령 세례의 내적인 은혜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
      - 그리하여 한 사람을 예수님의 역사에 실제로 연결시킴.
    - 칼빈의 세례에 대한 이해
      - 세례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생화로 그린 것처럼" 표상.
      - 세례에서 수반되는 말과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깨끗함을 받아 새로워짐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 주는 표시로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표시
      -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루기로 뜻하신 연합과 친교를 가장 견고하게 묶는 때"
      -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사람과도 연합됨을 함축하고 있다. "세례는 입회의 표시로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라는 사회 속으로 받아들여진다"
    - 제자 양성은 세례로 시작된다. 교리는 그리스도의 드라마에 참여한 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연극적인 지시에 비유할 수 있다.
  - (3) 연극단 지도하기:교리교사, 극작술가, 신학자로서의 목회자(목회자의 역할)
    - 교리문답:구두 말씀에 의한 가르침
      - 성경은 연극대본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제자로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일차 텍스트.
      - 초대교회
        -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
        - 세례 받기 전 1-3년에 걸쳐서 교리교육(Catechesis)을 받음.

- 비공식 가르침(구두로 가르침)으로 시작되어 교본을 완비한 "교리문답제도"로 발전됨.
- 교리교육은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드라마의 이야기와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 두번의 황금기
  - 교부시대(4-5세기)
    - 부활절에 시행될 세례식을 대비하여 사순절기간동안 교리문답강의 실시
    -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문답
      - 교리교사들을 위하여 작성한 요람으로 제자 교육을 위한 체계로 구원 역사에 치중
      - 교리문답을 기독교 제자 양성에서 수련으로 이해함.
      - 좋은 교리문답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드라마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킨다.
  - 종교개혁시대
    - 학습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복원함
    -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교리문답서를 작성함. 일차적인 목적은 목회자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기독교의 길을 걷도록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
    - 칼빈의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서(1541)
      - 교리문답의 옛 관례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문항들로 구성됨
      -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
      - 1년에 4차례씩 성찬을 기념하기 직전에 공개 낭독함
      - 믿음, 순종, 신앙성장, 교회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주제로 하는 373개 문항으로 구성됨
      - 교리와 의무와 경건을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성찬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올바르게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이해를 제자들에게 제공함.
- 로마제국시대
  -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교리교육은 하락세로 접어듬
  - 유아세례가 규범으로 자리잡기 시작
- 극작술:"올바른 교리"의 본질
  - 극작술가
    - 연기자들이 대본을 더 잘 이해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을 더 잘 연기하도록 도움으로써 드라마를 원활하게 전개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
    - 연극을 연구하고 역사적인 정확성을 기하고 극작가의 의도에 관하여 생각하고 연극의 제작 역사를 조사하는 일을 함.
  - 극작술가로서의 목회자 -신학자
    -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침- 교사의 역할
    - 세례 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음.
    - 목회자-신학자의 존재 목적은 제자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자기 배역을 익히고 연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기독교 교리의 본질과 목적
    - 교회가 복음의 드라마와 그 안에서 새로운 자기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
    -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이해를 위한 지시를 모두 제공함.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몸짓 언어"를 위한 문법을 제공.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을 위한 지시를 제공.
    - 지도하는 교리가 없는 교회는 맹목적이다. 그렇지만 체험하는 교회가 없는 교리는 공허하다.
- 지역, 지방, 명작 극장: 신조와 신앙고백서
  - 극장의 구분
    - 지역 극장 : 지역 교회
    - 지방 극장 : 구체적인 역사와 지리를 공유한 교회들
    - 명작 극장 : 고대 교회가 소집했던 일곱 공의회
  -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중요성
    - 목회자가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 도구임.

- 신조 신학(명작 극장 상연을 통해 생긴 결과물)은 "보편적인" 지시이며 만고불변의 통찰을 제공하기에 보편교회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식으로 채택된 것임.
- 교리문답서와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제자 양성이 아닌 분열(교파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지 계시 자체가 아님.
- 어느 하나의 신앙고백서나 전통이나 교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결코 완전하게 포괄하거나 표현하지 못함. 처음 만들어진 시대의 흔적을 나타내지만 구속 드라마의 특정 측면에 대한 소중하고 영속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 지역교회 목회자의 역할
  - 자신이 돌보고 가르치는 지역 교회를 신조신학이나 신앙고백적인 신학과 관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 교회의 목회자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유대뿐 아니라 보편 교회와의 유대도 가져가야 함. 따라서 역사적인 공교회의 상연관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화목의 극장: 그리스도의 화평을 현시하기(교회의 정체성/사명)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 - 화평과 화목.
    - 성육신하신 영원한 아들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관계(화목)가 존재한다는 의미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2:14)
    -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연극단 회원들 "사이에서" 지켜지는 그런 화목의 관례들 속에 가시적으로 현존하신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을 드러내는 화목의 극장으로서의 교회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교회가 실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5:18)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얻은 화목을 증언하라는 명령이다.
    - 화목의 극장이 되는 일, 곧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서로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체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실재를 현시하는 일을 하려면 세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연극단이 필요하다.
    - 교회는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가 이루어지는 연극단 -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요일1:3) 삼위 하나님과 서로 간에 교제하는 성도들의 연극단
    - 하나님의 뜻을 상연할 뿐 아니라 곧 삶에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임.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으로서 존재하는 것임(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체현하는 공동체로 존재)
- 3. 회중적인 삶의 장면들(성도들의 교제의 특징)
  - (1) 성도의 교제는 세상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을 공개적으로 체현하는 것.
  - (2) 화목의 극장으로서 어떻게 그 자체의 공동생활을 "그리스도의 사회"로 조직할 수 있을까? 교회가 수행하는 활동을 명확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를 삶으로 구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3) 불신앙의 회중:그리스도 없는 공동체?
    - 화목의 극장이 되고자하는 후보 집단이 많다.
    - "불신앙의 회중들", 즉 비종교적인 사회 운동 단체들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들면 하버드대학교의 인본주의 공동체 등 미국 전역에 1백개 이상의 인본주의 공동체 지부들이 있음.
    - 인본주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없이 그리고 예수님 없이 공동체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그 모습이 갈수록 기독교 교회와 비슷해 지고 있다.
    - 불신앙의 회중들도 교리를 실연한다. 동시에 교회를 구별되고 독특한 화목의 극장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자극한다.
    - 기독교 공동체가 갖는 차별성
      -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초윤리적이고 종말론적 성격을 띤다.
      - 성도의 교제는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어떤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실재다"(본 회퍼)
    -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목을 삶으로 구현하는 방식...신실함, 관대함, 환대
  - (4) 경건한 회중(1) : 신실함
    - 믿음은 복음의 선포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써 사는 것이다.
    -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신 의미에서 신실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

-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하고 그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
- 공동체에 필요한 신의는 부부간의 신의를 실천 하는 일
  -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외적인 표지가 되어야 함(언약적 성실성이 요구됨)
  -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결혼의 탁월성"
    - 결혼이 독특한 사회적인 결합을 만들어 낸다. 나눌수 없는 연합의 성례
    -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뿐 아니라 그 연합의 불가해소성까지 상징.
    - 상호 신의의 미덕, 그들이 특별하게 한 몸으로 누리는 교제의 유일성에 대한 헌신
  -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성도의 교제의 축소판
  -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인격을 위한 학교"라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화목의 극장이 되어야 한다.
- (5) 경건한 회중(2) : 관대함
  -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서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일
  -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쏟은 관심
    - 연보는 바울의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
    - 바울이 모금에 보였던 열정(강박증)의 이유
    - 연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 - 은혜, 봉사, 교제, 봉사의 직무 등
    - 의무적인 납부금이 아닌 자원하여 참여하였던 일(고후8:3-4)
  - 관대한 기부의 의미
    - 제자들이 삼위 하나님, 특히 성자의 고결한 자기 희생을 증언하고 참여하는 방법
    -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실현하는지를 유력하게 보여주는 방편이다. 한 몸된 성도의 교제에 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엡5:28). 연보를 통하여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임을 실증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교회가 성도의 교제뿐 아니라 섭리 교리를 실현하는 방법. 교회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때 하나님이 기본적인 필요를 위하여 제공하시리라고 믿는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결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망설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친다.
  - 죄용서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보화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용서임.
    -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3:13, 엡4:32).
    - 용서는 필수적인 화목의 관례로서, 성도들로 구성된 연극단에 교제를 회복시킨다. 제자들은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 진정성을 가장 크게 드러낸다.
    - "다른 성도들에 대한 죄를 고백할 때 "공동체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약진이 이루어진다"(본 회퍼)
    -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풍성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표시와 실연으로서 서로 용서하도록 요구받는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할 때, 삼위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극적으로 현시되는 움직임 속으로 들어간다.
- (6) 경건한 회중(3) : 환대
  -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근본 태도로서, 하나님의 "집", 삼위 하나님 자신의 삶을 "외인과 나그네"(엡2:19)에게 개방하는 것
  -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함.
  -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과 가정으로 초대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삶으로 구현하고, 기독교의 환대를 회중적인 삶의 특유한 장면으로 만들수 있어야 한다.
  - 예수님의 가르침 - 환대를 되갚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환대를 베풀도록 요청(눅14:13) -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환대를 반영
  - 환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에게 공유된 사랑의 표현으로서 복음을 실연함.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급진적인 환대.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환대받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롬15:7)
  - 환대는 어떤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들 중 하나다. 환대는 은혜를 말할 뿐 아니라 실행하는 방법이다.
  -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님이다.
- 4. 교제를 시연하기:복음의 총체로서의 성찬
  - 성찬

- 교회는 성찬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제시하고 나타내신다. 신적행위 주체와 인간 행위 주체가 성찬의 과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함.
- 성도의 교제의 역동적인 표지인 신실함, 관대함, 환대의 요약
- 구속 드라마의 절정(새롭고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의 창조)에 대한 적요, 총괄을 표상한다는 면에서 "복음의 총체"
- (1) (구별된) 단독 무대 장치로서의 식탁
  - 식사처럼 평범한 무언가가 복음의 극장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될수 있을까? 불신앙의 회중들도 식사를 함.
  -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순간 제자들은 구속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전 10:16)
  -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던 주의 만찬은 본질을 상실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강렬하게 그려내야 하는 행사가 오히려 지속적인 불평등(분열)을 노출하는 불미스러운 전시장이 되었다(고전11:21). "그래서 그 식사는 끝사나운 광경이었으며 주의 만찬에 준하지 않았다"(칼빈)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를 상징해야 할 식탁이 분열과 불화의 상징으로 바뀜
  -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전에 스스로를 살핌으로써 주의 만찬에 적합하게 참여할 수 있음(고전 11:28-29)
- (2) 예수님의 죽음에 적합하게 참여하기 위한 지시(바울의 설명)
  -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눅22:19)
    - 세례가 구속 드라마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면, 주의 만찬은 우리가 그 여정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는 안식처
    -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체적인 형태로 상기시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
    - 예수님은 주인인 동시에 음식이다.
  -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22:19)
    - 교회는 구경꾼이 아닌 연기자로, 먹고 마시는 일에 적극 관여하는 참석자로 주의 식탁에 모인다.
    - "행하여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의 활동을 넘어서 시연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미래에 상연될 어떤 것에 대한 준비로서, 과거에 행해진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어떤 일을 현재에 실행하는 문제다.
  -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막14:25)
    -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고전 11:26)
    - 주의 만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혼합하는 것. 주의 죽으심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교회는 지금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으며 그 만찬 자체는 위대한 왕의 재림에 이어질 천국 잔치에 대한 전조다.
    - 주의 만찬은 하나님 드라마의 의미로 가득한 상징적인 행위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만찬으로 의사소통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의사소통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모든 성도와의 교제다.
- (3) 떡을 떼기, 몸을 분별하기
  - 복음의 극장으로서 교회는 주의 만찬에 적합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현시한다.
  -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
    - 교회는 이미 과거(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어떤 것(어린양의 혼인잔치)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
    - 떡을 떼면서 실행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기획이나 연출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의사소통 행위와의 참여이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을 기념하는 것
    - 칼빈의 이해
      -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전체 사건이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행위는 그 식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유익을 전달함으로써 교회의 믿음을 복돋는 수단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아닌 바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체화된 행위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상징한다(고전 10:16)
      -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영양분을 제공하는데, 성경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와의 친교로 끌어올리신다. 주의 만찬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의 농축된 형태로서 믿음에 활력을 제공한다.
      - 주의 만찬은 가장하기가 아니며 실제적인 수술실이자 은혜의 수술실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을 정말로 함께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영적 현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신령한 몸의 실제적인 현존을 인정할 때 몸을 올바르게 분별한다.
  -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화

- "그리스도가 자신을 모두에게 공유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두를 자신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다"(칼빈)
  -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거나 다시 제시할 뿐아니라 그리스도를 현존화하기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시행한다.
  -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연합이라는 이중의 교제(communio)를 전달하는 만큼 복음의 극장이다.
  - 복음의 극장인 교회는 영원한 말씀의 위대한 연극에 담긴 중심 사상을 함께 전달하는 연기자들 사이에서 체화된 상호 작용인데, 중심사상은 곧 그리스도 안에 요약된 "하늘에 속한 신성한 복"(엡1:3)이다. 이런 영적인 복들 중에 포함되어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연합과 교제이다.
  - 올바르게 "몸을 분별하는 것"(고전 11:29)은 식탁에서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cummunio sanctorum), 곧 성도들이 현재에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을 목격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현존화하는"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회가 되는 것/교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다.
  -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대단히 압축적이면서도 농축된 형태로 보여주는 연극 상연이다. 교회는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자신의 일체성을 선포하는 동시에 상연하다.
  - 세례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연극단은 함께 떡을 떼면서 통일된 믿음의 연극단이 된다.
5. 재현: 보편적-복음적인 명령법
- 주의 만찬은 교리인 동시에 행함이다. 주의 만찬은 구속 드라마에서 최고의 대목인 예수님의 죽음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동시에 구속 드라마의 결말,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광경도 뚜렷하게 현시한다.
  -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
  - 보편적-복음적인 명령법 :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안에서 삶으로 구현하라!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함께 성도들의 공동 생활 속에서 실연하라는 뜻.
  - 지역교회는 참 교회이기는 하지만 전 교회는 아니다. 어떤 기독교 공동체도 복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의 풍부함을 단독으로 전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공동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를 어떻게 실연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지역 교회들은 역사적, 지역적으로 더 광범위한 성도의 교제에서 조언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